

2011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김정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홍보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8월 9일(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을 주제로 201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대교협 김영길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세계의 도전 과제들은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 물 문제 등이기 때문

에 교과를 중시하는 학습보다는 학제간 통합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육을 통해 국제적 사고방식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세계대학총장협회 마이클 애덤스 회장(미국 페어레이 디킨슨대 총장)이 “21세기 글로벌 교육”, 대교협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이 “교육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 부교육 위원장(영산대 총장)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첫 번째 기조강연자인 마이클 애덤스 회장은 “21세기 대학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경을 뛰어넘어 일해야 하고 세계시



민이 되어야 하며, 이에 글로벌 교육이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기조 강연자인 김영길 회장은 빈곤과 문맹퇴치, 인권신장, 지속가능한 개발 등 UN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질적 원조가 아닌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UN Academic Impact 10대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허브 대학 그리고 UNAI ASPIRE(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 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기조강연자인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 부구욱 위원장(영산대 총장)은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류 공영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시민 의식의 필요성과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서는 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입학사정관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문제의 해결,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방향, 고교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대학 재정대책위원회는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방안”과 “사립대학 경상비 재정

지원의 타당성과 방안”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 확대,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식 개선, 국립대 차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구 노력 확대, 국립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립대학 경상비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내용,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시험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는 “국공립대학의 교원 수급 정책 방향과 과제 : 시간강사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대학환경의 급속한 변화, 대학 여건의 국제 비교, 국공립대학의 교원수급 정책 방향, 국공립대학의 교원수급과 시간강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 마련”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내용, 법률안 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대학정보공시 현황 및 개선방안”과 “기관평가인증의 동향”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학정보공시제 발전방향으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 공시시스템 안정화 유지, 효율적인 공시제도 운영·관리, 공시정보의 활용도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기관평가인증의 동향에서는 국외 기관평가인증의 사례와 국가간 인증기준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화대책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간 커리큘럼 개발”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언어, 교수 방법의 특성, 교수의 자기 역량 계발, 대학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총장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집약하여 질의하고 정책 건의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무도 함께 강조하며, 대학구조 개혁과 등록금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들은 이번 하계총장세미나를 토대로 하여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